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어휘 고찰*

- 품사별 분석을 통하여 -

송정식** · 이미숙***

〈요지〉

본고에서는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어휘 비교를 통해 양국 교과서 어휘에 나타나는 언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숫자로 살펴보면,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에 있어서 한국교과서는 1,574어, 7,488어이고, 일본교과서는 1,152어, 6,185어로, 한국교과서가 어휘양이 많았으나, 1단어의 평균 등장회수는 한국이 4.8회, 일본이 5.4회로, 일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사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명사에서는 양국 모두 친족명사의 사용빈도가 높았는데, 한국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은 'おばあさん', 'おじいさん'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대명사에서는 양국 교과서 모두 인칭대명사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권오순' 등 저자명이 20여개나 등장하여 여러 저자의 다양한 작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하다' 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여 많이 쓰였는데, 일본의 경우도 '하다'에 대응되는 'する' 동사가 23회나 사용되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형용사의 경우, 양국 모두 주로 감정 표현과 색상, 능력, 밝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위어로 조사 되었다. 부사의 경우 양국 모두 주로 관계(함께, いっしょに 등)를 나타내는 단어나 시간(먼저, いつも 등), 양이나 빈도(많이,たくさん 등)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호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침표(,) 사용이 매우 적었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 띄어쓰기가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어에 비해 사용량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일어간 기호사용 양상의 확연한 차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침표 사용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어교과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한·일 양국 교과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해나가고자 한다.

논문분야 : 어휘

키 워 드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 개별어수, 전체어수

1. 들어가는 말

단어의 집합을 어휘(Vocabulary)라 하는데, 분류기준에 따라 기본어휘, 기초어휘, 기간어휘, 기준어휘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¹⁾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A-A00112)”

** 인하공업전문대학 조교수(일본어학·어휘론전공)

*** 명지대학교 교수(일본어학·대조언어학전공)

1) ‘기본어휘’는 특정목적에 위한 어휘조사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특정목적에 맞도록 고빈도이며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는 단어를 선정한다. ‘기초어휘’는 일상 언어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를 말하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체계적 계통적으로 선정되어질 수 있다. ‘기간어휘’는 어떤 언어의 집단에 기간부로서 존재하는 어휘로, 어떤 언어를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군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기준어휘’는 표준적 사회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어휘를 지칭하며, 상용한자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는, 기본어휘의 특성에 교육이라는 목적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교과서는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해당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자,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대변하며, 국가의 언어정책이 매우 잘 반영되어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어교육의 토대로서, 그 의의와 역할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 연구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일간 국어교과서 어휘 전체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 2011년에 들어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정이 마무리되는 해이므로, 한·일 초등학교 교과서 연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의 어휘 조사 대상 자료는 2009년 개정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와 2011년 개정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의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로 언어의 4기능 중, '읽기'영역에 한정하였다. 양적으로 한국은 본고에서는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비교를 통해 양국 교과서 어휘에 나타나는 품사별 언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종래의 교과서 어휘 연구는 사용빈도수 조사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휘 분석대상도 전체가 아닌 소수의 특정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비교 대상이 한·일 양국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전체이며 또한 가장 최근에 제작된 교과서 어휘이기 때문에 양국 교과서의 어휘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

어휘를 단어의 집합으로 연구하는 계량적 어휘연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휘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단어를 수량적으로 다루는 경우이다. 이것은 어휘의 구성요소인 각각의 단어가 갖는 수량적 성질을 이용하여 단어의 사용빈도 면에서 어휘의 특징을 밝히고자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어휘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는 개개의 의미의 집합이므로 단어 전체의 수량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휘의 의미 분야별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의미 분야별 구조 분석 기법에 의한 어휘 연구는 어휘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단어가 수량적 존재임과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어휘의 수량성과 의미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어휘의 수량적 성질을 이용하여 단어의 사용빈도 면에서 어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는 각각의 단어의 모임으로, 수량적 존재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의 집합으로서 어휘를 다루는 데는 어휘가 갖는 수량적 관점이 가장 우선적 요소로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어휘 연구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어휘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단어의 집합에 초점을 맞추어, 어휘가 갖는 수량적 성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일본의 경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휘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948년에 설립된 国立国語研究所가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일련의 대규모 어휘 조사에서 어휘를 계량적으로 취급하여, 품사별·어종별·어구성별로 현대 일본어의 어휘가 갖는 어휘의 일반적인 특징 및 수량적인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동 연구소가 작성한 『日本語教育のための基本語彙調査』(2001)자료는 『教育基本語彙データベース』(교육기본어휘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되어 있는 어휘이다.²⁾ 이것은, 기존의 교육 기본어휘를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교육상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어휘를 망라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教育基本語彙データベース』는, 사카모토(阪本) 교육 기본어휘, 신사카모토(新阪本) 교육 기본어휘, 다나카(田中) 교육 기본어휘, 이케하라(池原) 교육 기본어휘, 아동언어연구소(児言研) 교육 기본어휘, 중앙교육 기본어휘, 국립국어연구소 교육 기본어휘 등, 7종의 교육기본어휘 정보와 단어의 사용 양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교육 기본어휘 선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가 1970년~80년대 자료이므로,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된 자료라는 인식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마무라나오미(島村直己:1983)의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교과서 연구는 光村図書·東京書籍·教育出版 등, 3社가 1978년도에 발행한 초등학교 저학년용(1·2 학년용) 국어 교과서의 본문을 대상으로, 어휘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개별어수(異なり語数)가 3,826어이며, 전체어수(延べ語数)가 25,863어였다. 실제로 시마무라 이전에 이루어졌던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어휘연구에 있어서 한쪽 편, 즉 개별어수만을 다루든지 전체어수만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제는 어느 한 쪽이 어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 왔다는 점이다. 시마무라는 개별어수와 전체어수³⁾의 양쪽 모두를 채택하여 품사별 구성 관계, 어종별 구성 관계, 표제어의 교과서간 공통성 등 국어교과서 어휘의 다양한 사실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어휘 연구의 큰 방향을 제시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어서 한·일간의 어휘를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어 연구자들의 경우, 이강민(2003), 장원재(2005)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휘는 물론 어휘교육에 관한 연구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한국의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 어휘나 일제 강점기시대의 교과서연구(윤재숙:2009)⁴⁾가 대부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李庸伯(2004), 申政澈(2001) 등에 의해 한·일 초등학교 기본 어휘 비교가 시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申(2001)은 비교 어휘연구의 방법인 「의미 분야별 구조 분석법」을 통해 일본어·한국어의 어휘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밝히고 그 유의차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申(2001)이 지적하고 있는 유의차의 원인은 ‘자료’, ‘언어구조’, ‘어종’, ‘문화’ 등의 4가지로 일본어의 ‘초등학생 기본어휘’에는, 한국어의 ‘초등학생 기본어휘’에는 선정되지 않는 외래어, 의성어·의태어, 인사 표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유의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일어의 유사·상이점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읽기 부분을 대상으로 어휘 범주의 유의차와 양 언어와 그 배경이 되는 문화와의 영향관계를 밝히려했다는 점에서 ‘의미상 분류 비교’라는 초석을 다져준 연구로 평가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국립국어연구에 의해 교육기본어휘연구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어휘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휘조사표 등도 제공되어 왔으며 연구자 개인에 의한 교과서 어휘연구도 이루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교육기본어휘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어휘조사표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어휘조사표를 만들어 비교 어휘 연구를 통해 한·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특징을 밝히며, 향후 다양한 언어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연구소의 시마무라(島村)가 일찍이 「小学校低学年用国語教科書の用語」(초등학교저학년용 국어교과서의 용어)를 조사하고, 『研究報告集4』에 게재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조사된 데이터이다.

3) 개별어는 異語와 같은 의미로 영어로는 Different Words이다. 전체어는 延語와 같은 의미로 영어로는 Running Words이다. 개별어, 전체어의 수를 개별어수, 전체어수로 부르고 있다.

4) 1945년까지의 일본 국정 국어교과서 71권의 어휘를 ‘分類語彙表’에 의해 분류하여, 시대의 사회배경 및 일본인의 의식구조가 국어교육에 반영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3. 어휘 연구 방법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조사 대상 자료를 한국과 일본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2009) 『국어 읽기』 1-1/1-2 미래엔 컬쳐그룹
 일본 : 宮地裕외(2011) 『こくご』 1 上/1下 光村図書(文部科學省檢定済教科書)

먼저, 어휘연구는 ‘대상어휘의 선정’, ‘어휘조사’, ‘어휘의 비교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 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휘조사’라 할 수 있다. 이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조사 대상 교과서 문장을 문서화하여 텍스트파일로 만든다. ②다음으로, 어휘 조사 단위로서 분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어로 분할 작업을 실시한다. ③그 다음에는 예문과 소재를 갖춘 어휘표 작성을 위해 데이터의 프로그램 처리를 행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어휘 조사표가 완성되면 다음 단계로는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어휘에 나타난 한·일 양국 교과서 어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 어휘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휘의 양이 아무리 같아도 개별어의 집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때 서로 양쪽 어휘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통계기법인 ‘ χ^2 自乗値(가이지조검정)’을 이용한다. 이것을 통하여 서로 다른 어휘의 양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④그리고 유의차가 발생한 항목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한·일 양국 교과서 어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⑤분석 결과를 통해 양국교과서 어휘가 갖는 언어적 특징 또는 그 나라의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적 특징 교과서의 구성 및 체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다음으로 어휘 조사의 경우, 조사(단어분할) 기준은 다지마이쿠도(田島毓堂:1999)의 논문에 근거하여, 최초 문절로 분할한 후 다시 자립어와 부속어로 분리하여 단어를 추출하였다. 한국어의 경우는 일본어 문절대신 어절을 근거로 일본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할하였다. 이하 한·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어휘 조사 대상 및 단어별 분할 예를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 교과서〉

- 1) ‘읽어봅시다’부분 전문 입력
- 2) ‘글:안도현, 그림:조민경’과 같이 저자 부분 포함
- 3) 글자를 넣어서(만들어서) 읽는 부분의 단어는 제외
- 4) ‘물음에 답하여봅시다’, ‘알아봅시다’부분 내용은 제외
- 5) ‘읽어봅시다’부분에서 본문 내용과 동일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예 : 슬기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나직하게 말하였어요.....)
- 6)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부분 제외
- 7) ‘놀이터’에 나오는 본문내용은 포함하나 그림 부분은 제외
 (‘알아봅시다’에 해당하거나 “읽어 봅시다”라는 설명이 없는 부분 제외)
- 8) 각 과의 본문에 그림에 대한 설명부분은 포함하나 그림(자체)은 제외

(예: “비상구그림”(제외):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곳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요.(포함))

(한국교과서 단어 분할 예)

2,꼼꼼히,살펴보,아,요,023,01,

송편,024,01,

송편,은,추석,에,먹는,대표적인,음식,입니다,,024,02,

송편,은,보름달,이나,반달,모양,으로,빛,습니다,,024,03,

그래서,‘달떡,’이라고,도,부름,니다,,024,04,

송편,을,만드는,재료,에,는,024,05,

쌀가루,로,만든,반죽,덩어리,와,024,06,

송편,속,에,넣는,소,가,있,습니다,,024,07,

송편,의,소,는,깨, ", 팔, ", 콩, ", 밤, ", 녹두, ", 024,08,

대추,등,으로,만들,니다,,025,01,

〈일본 교과서〉

- 1) 한국어 교과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력
- 2) 단 한자에 대한 요미가나 부분은 입력에서 제외

(일본교과서 단어 분할 예)

じどう車,くらべ,022,01,

いろいろな,じどう車,が,, ,どうろ,を,はしつ,て,い,ます,, 022,02,

それぞれ,の,じどう車,は,, 022,03,

どんな,しごと,を,し,て,い,ます,か,, 022,04,

その,ために,, ,どんな,つくり,に,なつ,て,い,ます,か,, 022,05,

バス,や,じょうよう車,は,, 023,01,

人,を,のせ,て,はこぶ,しごと,を,し,て,い,ます,, 023,02,

その,ために,, ,ざせき,の,ところ,が,, 023,03,

ひろく,つくつ,て,あり,ます,, 023,04,

そと,の,けしき,が,よく,見える,ように,, 023,05,

大きな,まど,が,たくさん,あり,ます,, 023,06,

4.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품사별 비교 및 어휘 고찰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를 조사하는데 있어, 기호와 문자를 포함하여 총 13가지 형태의 품사로 분류, 개별어수와 전체어수 비교 및 χ^2 自乗値를 제시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대명사의 경우는 명사에 포함하고 의성어나 의태어 등은 부사, 보조동사는 동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양국 국어교과서 어휘의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분류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표 1〉 한·일 1학년 국어교과서 품사분류에 의한 개별어수와 전체어수 비교

품사분류	개별어수				χ自乗値	전체어수				χ自乗値
	국어 읽기 1		国語一			국어 읽기 1		国語一		
	도수	비율(%)	도수	비율(%)		도수	비율(%)	도수	비율(%)	
1) 명사	591	37.55%	550	47.74%	28.398	1642	21.93%	1352	21.86%	0.009
2) 대명사	87	5.53%	37	3.21%	8.198	331	4.42%	116	1.88%	69.366
3) 동사	328	20.84%	217	18.84%	1.663	942	12.58%	592	9.57%	30.779
4) 형용사	98	6.23%	50	4.34%	4.597	189	2.52%	109	1.76%	9.216
5) 부사	167	10.61%	94	8.16%	4.604	371	4.95%	170	2.75%	43.373
6) 접속사	16	1.02%	14	1.22%	0.236	63	0.84%	49	0.79%	0.100
7) 연체사	13	0.83%	11	0.95%	0.122	43	0.57%	41	0.66%	0.435
8) 감탄사	21	1.33%	22	1.91%	1.408	36	0.48%	44	0.71%	3.095
9) 의성/의태어	33	2.10%	25	2.17%	0.016	48	0.64%	70	1.13%	8.531
10) 보조동사	121	7.69%	65	5.64%	4.366	1060	14.16%	869	14.05%	0.031
11) 조사	70	4.45%	42	3.65%	1.078	1714	22.89%	1467	23.72%	1.303
12) 문자	15	0.95%	18	1.56%	2.051	15	0.20%	25	0.40%	4.823
13) 기호	14	0.89%	7	0.61%	0.680	1034	13.81%	1281	20.71%	114.746
총 계	1574	100%	1152	100%		7488	100%	6185	100%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1학년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가 1,574어, 전체어수가 7,488어이고, 일본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가 1,152어, 전체어수는 6,185어로 한국의 국어교과서 쪽이 개별어수는 422어, 전체어수는 1,303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1학년 국어교과서의 경우, 개별어의 평균 사용률은 약 4.76회(7,488/1,574) 정도이며, 일본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의 평균 사용률은 5.37회(6,185/1,152)로 한국교과서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품사분류에 있어 보조동사 및 문자와 기호를 포함하여 분류한 것은 양국교과서에 나타나는 모든 문자 정보를 취합하여 실제 어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 1학년 국어교과서의 주요 품사들을 보면 개별어수와 전체어수 모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χ自乗値 결과를 보면 2)대명사, 3)동사, 4)형용사, 5)부사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가 유의(有意)의 대(大)(유의차가 현저한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일본 교과서는 1)명사, 13)기호 등의 경우가 유의(有意)의 대(大)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유의(有意)의 대(大)에 해당하는 항목은 〈표 1〉에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였다. 이하 각 절에서 주요 품사 및 χ自乗値 결과 유의차가 두드러진 항목을 토대로 양국 국어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명사

명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591어, 전체어수는 1,642어로 개별어 1단어가 평균적으로 2.78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개별어가 550어, 전체어수 1,352어로 1단어가 2.46회 사용되어 한국 쪽이 약간 높았다.

개별어수 측면에서 보면 명사의 경우, 한국은 전체어수 1,574어중 591어로 약 37.55%인데 비하여, 일본은 전체 1,152어중에서 명사가 550어로 47.74%를 차지하여 한국보다 약 10%정도 명사 사용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χ自乗値 결과를 보더라도 일본 쪽이 유의(有意)의 대(大)로 유의차가 확연히 높은 것

5) 이(2004, p58)에서는 한·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친족명사는 일본 교과서 쪽이 유의(有意)의 대(大) 함목이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 어머니(17)

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한1-1, 9:1)*② “어머니!” 몹시 지친 도라지는 어머니를 부르며 (한1-1, 94:5)* (한1-1, 9:1): 한1-1은 1학년1학기 한국 국어교과서,
9는 페이지, 1은 행을 의미함.(이하 동일)

예) おばあさん(41)

③ おじいさんをおばあさんがひっぱって、(日1上, 77:1)

④ ねこも、おばあさんも、たくさんさかなをとりました。(日1下, 114:3)* (日1上, 77:1): 日1上은 1학년1학기 일본 국어교과서,
77은 페이지, 1은 행을 의미함.(이하 동일)

한·일 양국 국어교과서의 친족명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사항은 한국은 ‘어머니(17회)’, 일본은 ‘할머니(おばあちゃん을 포함하면 52회)’라는 단어가 각각 1위라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어휘조사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라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높는데 대하여 할아버지란 단어는 1회 사용되었으며,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사용빈도가 높았으나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おとうさん’이란 단어는 ‘ちち’포함해서 1회도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 1학년 국어교과서 전체에 ‘おとうさん’(아버지)이라는 단어가 1회도 사용되지 않은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단어의 친근감을 더 우선시하여 교재를 편성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여겨진다. 일본 교과서의 경우 한국 교과서에 비해 ‘おばあさん’(할머니)라는 단어 사용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도 그러한 점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2) 대명사

대명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87어, 전체어수는 331어로, 1단어가 평균적으로 3.80회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개별어가 37어, 전체어수 116어로 1단어가 평균적으로 3.14회 사용되어 한국과 일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χ^2 自乗値 결과를 보면 한국 쪽이 유의차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명사의 경우, 한국 교과서에서는 개별어수 사용빈도가 많지만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가 많지 않다. 모든 단어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한국 교과서〉

나(44), 내(41), 우리(32), 그(11), 그것(7), 너(7), 라이카(7), 어디(7), 이(7), 저(7), 만복이(6), 슬기(6), 주영이(6), 초롱이(6), 최서방(6), 누가(5), 누구(4), 뭐(4), 신영이(4), 여기(4), 예진이(4), 재민이(4), 너희(3), 무엇(3), 민지(3), 박박이(3), 아무것(3), 코흘리개(3), 고(2), 그리스(2), 네(2), 눈썹침이(2), 민주(2), 민희(2), 성은(2), 성은이(2), 신규(2), 여기저기(2), 이것(2), 이곳(2), 이리(2), 제(2), 강소천(1), 거기(1), 권오순(1), 권윤덕(1), 권정생(1), 그곳(1), 김상련(1), 김원석(1), 년(1), 네(1), 도라지네(1), 러시아(1), 만복(1), 멕시코(1), 무엇이(1), 문삼석(1), 바둑아(1), 박목월(1), 박미영(1), 박일(1), 사우디아라비아(1), 선현경(1), 수영이(1), 신가영(1), 안도현(1), 예진(1), 윤동주(1), 이계(1), 이쪽(1), 이태선(1), 이태준(1), 장호(1), 저기(1), 저리(1), 저쪽(1), 조민경(1), 조성자(1), 주영(1), 최숙희(1), 피천득(1), 현수(1), 현아(1)

〈일본 교과서〉

エルフ(25), ぼく(18), わたし(13), これ(9), なに(5), どこ(4), くまさん(3), なかがわりえこ(3), なん(3), ぼくたち(3), けんじさん(2), ここ(2), なあん(2), おおきな(1), おおさわさん(1), おまえ(1), おむすびくん(1), かきもとうぞう(1), かわさきひろし(1), きしなみ(1), きみ(1), こちら(1), さのようこ(1), すぎうらはんも(1), すず가(1), そこ(1), それぞれ(1), だあれ(1), だれ(1), つきもとかよみ(1), ハンス=ウイルヘルム(1), ひさ야またいち(1), ぼくら(1), ますいみつこ(1), むらかみゆたか(1), りすさん(1), わたしたち(1)

위에 제시된 사용빈도 상위어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나(44), 내(41), 우리(32), 그(11), 그것(7), 너(7), 라이카(7), 어디(7), 이(7), 저(7), 만복이(6), 슬기(6), 주영이(6), 초롱이(6), 최서방(6), 누가(5) 등의 단어가 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 들이며, 일본의 경우는 엘프(25), ぼく(18), わたし(13), これ(9), なに(5) 등의 단어들이 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다.

한국 교과서에는 인칭대명사 나(44), 내(41), 우리(32), 그(11)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인칭을 나타내는 단어가 빈도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또한 라이카(7), 만복이(6), 슬기(6), 주영이(6), 초롱이(6), 최서방(6), 신영이(4), 예진이(4), 민지(3), 박박이(3), 코흘리개(3), 눈 찹찹이(2) 등 실제 이름이나 별명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사용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교과서에는 권오순(1), 박목월(1), 박미영(1), 안도현(1), 조민경(1), 최숙희(1), 피천득(1) 등 저자가 약 20여명이나 등장하여 여러 저자에 의한 다양한 작품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교과서의 경우에는 고빈도어로는 엘프(25), ぼく(18), わたし(13) 등의 인칭대명사 사용 비율이 높은 하지만 개별어수 면에서 한국보다 적고 사용빈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자를 나타내는 단어도 かきもとうぞう(1), かわさきひろし(1), さのようこ(1), すぎうらはんも(1) 등의 예가 등장하나, 한국의 경우 약 20여명 정도의 저자가 등장하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9명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과서 본문이 저자명이 없이 책 제목만 있고 내용이 바로 시작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어휘조사 결과는 이러한 일본 국어교과서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동사

동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328어, 전체어수는 942어로 평균적으로 1단어가 2.87회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개별어가 217어, 전체어수 592어로 2.73회 사용되어 한·일 양국교과서 간에 단어의 평균 사용률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개별어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전체어수 1,574중 328어로 20.84%이고, 일본은 전체 1,152어중에서 217어로 18.84%를 차지하여 한국 쪽이 조금 높다. 단 전체어수에서는, 한국의 경우는 12.58%로 일본 9.57%보다 높아 χ^2 自乗値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 쪽이 유의(有意)의 대(大)로 유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빈도 5회 이상 사용된 동사들을 제시하여 양국 교과서 어휘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 교과서〉

하다(35), 가다(35), 있다(27), 보다(25), 오다(25), 먹다(22), 되다(17), 말하다(17), 없다(16), 그리다(13), 만

6) 신(2001, p.53)에서는 '나', '너', '우리' 등과 같은 인칭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일본 교과서에 비해 한국 교과서에 더 많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들다(12), 생각하다(12), 쓰다(11), 자다(11), 잡다(11), 나오다(10), 타다(10), 넣다(8), 듣다(8), 살다(8), 주다(8), 말다(7), 부르다(7), 알다(7), 웃다(7), 가지다(6), 나다(6), 내다(6), 돌아오다(6), 들다(6), 지나다(6), 끝나다(5), 나누다(5), 따라하다(5), 모이다(5), 보이다(5), 붙다(5), 서다(5), 숨다(5), 쉬다(5), 신다(5), 앓다(5), 인사하다(5), 찾다(5), 추다(5), 이하 생략

〈일본 교과서〉

いう(27), **する(23)**, **ひっばる(20)**, ある(17), いる(16), いく(15), みつける(12), たたく(10), できる(10), たべる(9), つくる(8), まわる(8), かう(7), かえる(7), かく(7), きこえる(7), みる(7), おいでる(6), たつ(6), つく(6), つける(6), とる(6), ぬける(6), やる(6), よぶ(6), うまれる(5), かける(5), かぞえる(5), くる(5), さそう(5), はいる(5), もつ(5), わかる(5), 이하 생략.

위에서 제시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하다(35)**, **가다(35)**, **있다(27)**, **보다(25)**, **오다(25)**, **먹다(22)**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들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いう(27)**, **する(23)**, **ひっばる(20)**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어, 양국 교과서 어휘에 있어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비교해 볼 때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교과서의 경우 동사의 기본어휘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ひっばる(20)**라는 단어가 고빈도어로 조사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하 위에 제시된 고빈도어들에 대한 예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 **하다(35)**, **가다(35)**, **있다(27)**

- ⑤ 숙제를 하려고 읽기 책을 찾았다. (한1-1, 75:4)
- ⑥ 슬기가 메뚜기를 잡으러 간요. (한1-1, 52:3)
- ⑦ 우주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1-2, 33:4)

예4) **いう(27)**, **する(23)**, **ひっばる(20)**

- ⑧ いわなくとも, わかるとおもっていたんだね. (日1下, 49:1)
- ⑨ にひきはきのう, けんかをしたのです. (日1上, 94:1)
- ⑩ かぶをおじいさんがひっばって, (日1上, 72:2)

한국의 경우에는 ‘하다(35)’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여 많이 쓰였는데 일본의 경우도 한국어 ‘하다’에 대응되는 ‘する(23)’동사가 23회나 사용되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양국 모두 이동 동사나 존재사,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점은 유사하나 단어 사용 빈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ひっばる(20)’라는 동사가 사용빈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본 국어교과서 내용 전개의 하나의 특징인 문맥을 연상하여 기억하는 방법을 활용한 스토리(문맥) 전개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1학년 아동 학습자가 문맥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과 단어들을 반복하여 문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ひっばる(20)’라는 동사의 사용빈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요인은 1)명사부분에 등장하는 일본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할아버지와 관련성이 있다. 교과서 내용은 할아버지가 무씨를 뿌린 후 무를 뽑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고양이, 개, 쥐, 등의 동물들이 차례로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무를 잡아당기는 장

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잡아당기는 대상이 늘어날 때마다 문장에 계속해서 ‘ひっぱる’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사용빈도가 높아진 것이다. 유사한 예로 한국 교과서에도 ‘나무 나무 무슨 나무 가자 가자 감나무’와 같은 형태로 ‘나무’와 ‘가자’같은 명사나 동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국교과서에서는 1단어가 3번 이상 반복되는 구절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사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어휘조사를 결과를 통해 한·일 양국교과서에 사용된 단어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국어교과서의 구성이나 방향성 등 국어교과서와 관련된 언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4) 형용사

형용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98어, 전체어수는 189어로 평균적으로 1.93회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개별어가 50어, 전체어수 109어로 2.18회 사용되어 한국과 일본 교과서간에 약간의 유의차가 있었다. χ 自乗値 결과를 보면 한국 쪽이 전체어수 면에서 유의(有意)의 대(大)로 나타났다.⁷⁾

형용사의 경우 한국 교과서에서는 사용빈도 2회 이상 모든 단어들을,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서는 개별어수가 많지 않으므로 사용된 모든 단어를 각각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과서〉

좋다(10), 같다(7), 아프다(7), 고맙다(5), 괜찮다(5), 그렇다(5), 세다(5), 작다(5), 재미있다(5), 기쁘다(4), 신기하다(4), 하얗다(4), 가렵다(3), 궁금하다(3), 귀하다(3), 까맣다(3), 늦다(3), 많다(3), 맛있다(3), 좋아하다(3), 착하다(3), 걱정하다(2), 굵다(2), 귀엽다(2), 길다(2), 나쁘다(2), 낮설다(2), 달콤하다(2), 딱딱하다(2), 무섭다(2), 빨갛다(2), 슬퍼하다(2), 어리다(2), 예쁘다(2), 이상하다(2), 즐겁다(2), 춥다(2), 파랗다(2), 이하생략

〈일본 교과서〉

すきだ(9), だいすきだ(8), あおい(7), じょうずだ(7), しろい(6), あかるい(5), あかい(4), あまい(4), ひろい(4), いい(3),おいしい(3), おおきい(3), おもい(3), げんきだ(3), ながい(3), かわいい(2), よい(2), あたたかい(1), あったかい(1), いっぱいだ(1), うれしい(1), おおい(1), おなじだ(1), おもしろい(1), かたい(1), かなしい(1), かんたんだ(1), きいろい(1), きれいだ(1), くらい(1), さびしい(1), じょうぶだ(1), すばらしい(1), たまらない(1), ちいさい(1), つよい(1), はげしい(1), はやい(1), ふしぎだ(1), ふとい(1), ほそい(1), ほそながい(1), まっくらだ(1), まっしろい(1), まるい(1), むちゅうだ(1), やさしい(1), やわらかい(1), よわよわしい(1), らくだ(1)

한국 교과서에는 좋다(10), 같다(7), 아프다(7), 고맙다(5), 괜찮다(5), 그렇다(5), 세다(5), 작다(5), 재미있다(5) 등의 단어가 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すき다(9), だいすき다(8), あおい(7), じょうず다(7), しろ이(6), あかる이(5) 등의 단어가 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다.

형용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주로 좋아하는 감정 표현과 색상, 능력, 밝기를 나타내는 단어들

7) 이(2004, pp.88-89)에 의하면 한국 교과서의 경우, 기분, 정서, 대인감정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이 일본 교과서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위어로 조사 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에 비해 개별어수 전체어수 모두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위에서 제시한 고빈도에 속한 단어 중 각각 2개의 단어들에 대한 사용 예문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예) **좋다(10), 같다(7)**

⑪ 또또 상자에 색종이를 모아 두니 참 좋습니다. (한1-1, 85:3)

⑫ 나도 나이 먹으면 아버지 같을까? (한1-2, 101:4)

예4) **すきだ(9), だいすきだ(8)**

⑬ しめったところがすきです. (日1上, 108:3)

⑭ にいさんやいもうとも、エルフのことが太すきだった. (日1下, 47:6)

형용사의 경우, 일본어에는 い형용사와 な형용사로 대별되는 그룹이 있는데, 위의 어휘조사 결과를 보면 な형용사에 해당하는 すきだ(9), だいすき다(8)가 빈도수 상위어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じょうずだ(7), げんき다(3), いっぱいだ(1), おなじだ(1), かんたんだ(1), きれいだ(1), じょうぶ다(1), ふしぎ다(1), まっくら다(1), むちゅう다(1), らくだ(1)와 같은 단어가 50개중 11개 사용되어 な형용사의 개별어의 사용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부사

부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167어, 전체어수는 371어로 평균적으로 2.22회 사용되었고, 일본은 개별어가 94어, 전체어수 170어로 1.81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사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 어휘가 일본 교과서에 비해 약 2배정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어수에서는 유의차가 크지 않았지만, 전체어수의 χ 自乗値 결과를 보면 한국 쪽이 유의차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⁸⁾ 부사의 경우 양국 교과서에서 2번 이상 사용된 개별어수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과서〉

함께(12), 모두(11), 이렇게(10), 더(9), 먼저(9), 안(8), 왜(8), 가장(7), 서로(7), 잘(7), 참(7), 일른(6), 또(5), 못(5), 그만(4), 꼭(4), 너무(4), 다(4), 많이(4), 말(4), 맨(4), 어떻게(4), 조금(4), 최고(4), 가까이(3), 골고루(3), 날마다(3), 다시(3), 따뜻하게(3), 멀리(3), 빨갈게(3), 술술(3), 쑥(3), 아주(3), 열심히(3), 이제(3), 처음(3), 크게(3), 갑자기(2), 계속(2), 그냥(2), 깜짝(2), 몹시(2), 무척(2), 물론(2), 바로(2), 반듯하게(2), 세계(2), 아무리(2), 앞으로(2), 어서(2), 얼마나(2), 여러(2), 여러 가지(2), 예쁘게(2), 오래(2), 온(2), 요즈음(2), 자꾸만(2), 자꾸자꾸(2), 적게(2), 점점(2), 정말(2), 천천히(20), 텅(2), 한참(2), 흔히(2), 힘껏(2), 이하생략

8) 신(2001, p.103)에서는 부사의 경우, 한국 교과서가 有意의 大인 이유를 ‘많이’ ‘가까이’ ‘따뜻하게’ ‘빨갈게’ 등과 같은 단어들이 형용사에서 파생되어 부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본 교과서 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교과서〉

いっしょに(7), そう(7), たくさん(7), なぜ(7), もっと(6), いっぱい(5), なんか(5), もう(5), いつも(4), ずっと(4), すこし(4), たかく(4), また(4), きっと(3), ずっと(3), とても(3), どんどん(3), なんて(3), よく(3), いくつか(2), おおいそぎ(2), しばらく(2), じょうずに(2), とうとう(2), ほんとに(2), まだ(2), やがて(2), 이하생략

한국 교과서에는 부사의 경우 **함께(12)**, **모두(11)**, **이렇게(10)**, **더(9)**, **먼저(9)**, **안(8)**, **왜(8)**, **가장(7)**, **서로(7)**, **잘(7)**, **참(7)**, **얼른(6)**, **또(5)**, **못(5)** 등의 14단어가 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이며 2회 이상 사용된 단어 수도 68개나 된다. 반면에 일본어의 경우는 **いっしょに(7)**, **そう(7)**, **たくさん(7)**, **なぜ(7)**, **もっと(6)**, **いっぱい(5)**, **なんか(5)**, **もう(5)** 등 8단어가 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이며 2회 이상 사용된 개별어 수도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위에서 제시한 고빈도에 속한 단어 중 각각 2개의 단어들에 대한 사용 예문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예) **함께(12)**, **모두(11)**

①9 초롱이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한1-1, 46:7)

②0 새알은 **모두** 새끼 새가 되었습니다. (한1-2, 46:9)

예) **いっしょに(7)**, **そう(7)**

②1 **いっしょに**, **かわ**をつりました. (日1上, 86:5)

②2 **おかみ**さんは, **そう**おもいながら, 土間で (日1下, 76:6)

부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주로 관계(함께, いっしょに 등)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시간(먼저, いつも 등), 양이나 빈도(많이, たくさん 등)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기호

기호의 경우, 한국의 국어교과서에 사용된 기호의 수는 개별기호 14개이지만, 전체 사용빈도수는 무려 1,034회로 평균적으로 73.84회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개별기호 7개, 전체사용 빈도수는 1,281회로 평균 183회나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χ^2 自乗値 결과를 보면 일본교과서에 유의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기호의 경우 어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기호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여기에 양국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기호를 제시해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 교과서〉

.(508), ,(158), “(95), ”(95), ?(63), !(38), ‘(15), ’(15), ○○(14), :(13), ……(12), ♡(6), √(1), ○(1),

〈일본 교과서〉

、(632), 。(477), 「(82), 」(82), ((3),)(3), ・(2),

위에서 제시된 기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교과서가 좀 더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양국 교과서 모두 마침표(구점)(.)와 쉼표(독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유사한 양상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교과서의 경우, 기호의 종류는 적지만 전체 사용 빈도수는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한국 교과서의 경우 마침표와 쉼표에 대한 기호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침표(구점)의 경우는 '시'나 노래'등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로 소설형식 문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전체 508개의 문이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쉼표, 독점)가 158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508회 사용된 마침표에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수량이라는 사실이다. 즉 한국 국어교과서에는 사실상 하나의 문안에 쉼표가 사용되는 예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한국교과서 문장을 예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과서〉

㉓ 그런데 떡시루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떡이 조금씩 밖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한1-1, 101:3)

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됨을 이를 때에 '티끌모아태산'이라고 말합니다.

(한1-2, 86:5)

위에 제시한 예 ㉓, ㉔와 같이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쉼표(,) 사용이 매우 적은데 이것은 한국어의 경우 띄어쓰기가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그것도 상당히 긴 문에 서조차 쉼표(,)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은 교과서 제작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마침표(.)가 477회 사용되었는데, 쉼표(,)는 무려 632회나 사용되어 하나의 문안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쉼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본교과서의 경우도 예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교과서〉

㉕ 「した」に、ものがあることをしめすしから、「下」というかんじができました。

(日1上, 115:8)

㉖ 「まわれ、みぎ。」せんせいがごうれいをかけると、くじらも、空でまわれみぎをしました。

(日1上, 6:1)

위에 제시한 예 ㉕, ㉖와 같이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문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 중간에 쉼표를 찍어서 아동학습자가 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띄워 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로서 쉼표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긴 문에서 뿐만 아니라 '「うんとこしょ、どっこいしょ。」なかなか、かぶはねけません。'과 같이 구령하는 부분이나 부사 다음

에서도 쉼표(,)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 조사 방법을 통해 교과서에 사용된 기호수를 조사하고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품사들과는 또 다른 국어 교과서의 전개 방법이나 체제 및 교과서의 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교과서에 사용된 기호는 서로 유사한 점도 있으나 종류와 사용 양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비교를 통해 양국 교과서 어휘에 나타나는 언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품사별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사에서는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형식명사 사용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국 모두 친족명사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등의 단어가, 일본은 ‘おばあさん’과 ‘おじいさん’이라는 단어가 사용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2) 대명사에서는 양국 교과서 모두 인칭대명사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권오순’, ‘박목월’, ‘박미영’, ‘안도현’, ‘조민경’, ‘괴천득’ 등 저자가 약 20여명이나 등장하여 여러 저자에 의한 다양한 작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과서 본문이 저자명이 없이 책 제목만 있고 내용이 바로 시작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3) 동사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하다’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여 많이 쓰였는데 일본의 경우도 한국어 ‘하다’에 대응되는 ‘する’동사가 23회나 사용되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양국 모두 이동 동사나 존재사,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주로 사용되는 점은 유사하나 단어 사용 빈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형용사에서는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주로 좋아하는 감정 표현과 색상, 능력, 밝기를 나타내는 단어들 이 상위어로 조사 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에 비해 개별어수 전체어수 모두 적게 사용되었다.

5) 부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주로 관계(함께, いっしょに 등)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시간(먼저, いつも 등), 양이나 빈도(많이, たくさん 등)를 나타내는 단어들 이 상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기호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상당히 길다고 느껴지는 문에도 쉼표가 찍혀 있지 않았다. 한국교과서에 쉼표가 거의 없는 것은 띄어쓰기가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쉼표 사용이 매우 적은 점은 충분히 교과서 제작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겠다. 반면,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문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 중간에 쉼표를 찍어서 아동학습자가 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어교과서의 학년 등 범위를 확대하여 한·일 양국 교과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나아가 타 장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교과서 어휘만이 갖는 특징도 상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현진(2007) 「일본어의 가족호칭 사용 변화에 대한 연구」-일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62집1권 韓國日語日文學會 pp.1-21
- 윤재숙(2009) 「일본 국정교과서의 어휘교육에 관한 고찰」 『日本語教育研究』 16 韓國日語教育學會 pp.57-71
- 이강민(200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연구(2001-2002)-전문학술지의 연구동향」 『日本學報』 55-1 韓國日本學會
- 이용백(2004)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의 특징」-『窓際のトットちゃん』의 語彙와 비교를 통해서- 제51집 1권 韓國日語日文學會 pp.431-445
- 장원재(2005) 「한국에서의 일본어 어휘교육연구의 현황과 과제」 『日語日文學研究』 제52 집1권 韓國日語日文學會 pp.25-41
- 정광순외(2010)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분석」 『초등교육연구』 23 한국초등교육학회 pp.23-43
- 国立国語研究所(1964) 『分類語彙表』 国立国語研究所資料集6 国立国語研究所
- 国立国語研究所(1984) 『日本語教育のための基本語彙調査』 国立国語研究所報告78 秀英出版
- 国立国語研究所(1985) 『語彙の研究と教育(下)』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3 大蔵省印刷局
- 国立国語研究所(2001) 『教育基本語彙の基本的研究(教育基本語彙データベースの作成)』 国立国語研究所報告 117 国立国語研究所
- 島村直己(1983) 「小学校低学年用国語教科書の用語」 『研究報告集-4-』 国立国語研究所報告74
- 田島毓堂(1999) 『比較語彙研究序説』 笠間書院
- 中野洋(1981) 「『分類語彙表』의 語数」 『計量国語学』 12-8 pp.376-383
- 金直洙(2004) 「日韓 「基本語彙」의 比較研究-その選定及び意味分野別構造分析を中心に-」 『語彙研究叢書 1 比較語彙研究の試み11』 語彙研究会 pp.1-115
- 宋正植(2009) 「「中学校教科書」 語彙比較-意味分類別構造分析を通じて」 『日本語教育研究』 16 韓國日語教育學會 pp.39-45
- 申玟澈(2001) 「日韓語彙の対照研究-「小学校基本語彙」を対照として-」 『開発・文化叢書37 比較語彙研究の試み7』 名古屋大学大学院 国際開発研究科目 pp.13-159
- 李庸伯(2004) 「語彙の比較研究-小学校国語教科書を用いて-」 『比較語彙研究の試み12』 (田島毓堂編) 語彙研究会 pp.1-124

〈 要 旨 〉

韓・日小学校1年の国語教科書の語彙考察

- 品詞別分析を通じて -

本稿は韓・日小学校1年の国語教科書の語彙比較を通じて、両国教科書の語彙に見られる言語の類似点及び相違点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異なり語数と延べ語数における韓国の国語教科書はそれぞれ1,574語、7,488語であり、日本は1,152語、6,185語で、韓国の方が語彙量が多いことが分かった。一方、単語当たりの登場頻度は韓国は4.8回、日本は5.4回で、日本の方が高かった。

以下、両言語の品詞別特徴をまとめてみると次の通りである。

まず、名詞では、韓・日両国教科書共に形式名詞の使用が目立っていた。特に親族名詞の使用頻度が高いという点は注目に値する。韓国の場合は「어머니」「아버지」「할머니」等が、日本は「おばあさん」「おじいさん」等が使用頻度の高い単語である。次に代名詞では、両国教科書共に人称代名詞の比率が高かったが、特に韓国教科書の場合は「권오순」等の著者を表す語が約20余りで、色々な著者による作品が使われ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続いて動詞では、韓国の場合「하다」動詞が目的語を伴って高頻度語として使われており、日本の場合も「하다」に対応する‘する’動詞が23回も使われ、お互いに似ている傾向を示した。次に形容詞の場合、韓・日両国教科書共に、感情表現や色、能力、明るさ等を表す語が使用頻度上位語として用いられていた。次に副詞の場合は、韓・日両国教科書共に関係(함께, いっしょに等)を表す語、そして時間(먼저, いつも等)と、量や頻度(많이,たくさん等)を表す語が上位語として使わ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最後に記号では、韓国教科書の場合、読点「。」が殆どないことが特徴であると言える。これは韓国語に分から書きがあることと関わりも考えられるが、韓・日語の違いでもある。小学校1年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易しく理解できるように配慮する必要がある。

今後、上の調査結果を元に、今後両国の国語教科書の調査対象や範囲を広げて両国の国語教科書の類似・相違点を明らかにし、社会文化的な観点と結びつけて解釈していきたい。

論文分野：語彙

キーワード：小学校、国語教科書、語彙、品詞、個別語数、全体語数

■ 송정식 · 이미숙 (宋正植 · 李美淑)

인하공업전문대학 조교수 · 명지대학교 교수

songjeongsik@naver.com · lms@mju.ac.kr

■ 投稿日：2012년 6월 20일

■ 審査開始：2012년 7월 20일

■ 審査完了：2012년 8월 20일

■ 掲載確定：2012년 8월 22일